

세종조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禮樂思想)

김 율 희

강원예고, 해원예고 교사

I. 서 론
II. 세종조 무악정책(舞樂政策)의 전개양상
III. 세종조의 예악사상(禮樂思想)
IV.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禮樂思想)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본 논문은 조선 세종조에 이루어진 무악정책(舞樂政策)과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禮樂思想)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한국무용사 연구영역 중, 궁중정재 연구에 있어 조선왕조는 가히 주목할만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느 왕조보다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세종조의 무용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육영임(1995)의 석사논문 “연산조 무용사 연구”와 송성희(1971)의 “여말조초 궁중무용 연구” 등이 있으며, 정재를 사상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성기숙(2000)의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사대사상 연구”와 성윤선(1995)의 “조선전기 궁중정재의 유교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무용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시기의 궁중정재를 시대적 특성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단편적으로 연구되었던 한국무용사의 다양한 학문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역사적 시기를 조선전기 세종조로 한정하고, 춤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창제된 대표적 정재 「봉래의」(鳳來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국한시켰다.

조선왕조 역대 임금 가운데서 무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임금은 영조, 정조, 성종 등을 꼽을 수 있으나 무악정책(舞樂政策)에서 신악창제(新樂創製)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하여 실천한 임금은 세종뿐이었다¹⁾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조 무악정책이 표방하고자 한 유교이상사회, 즉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예악사상이 정재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정재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예악사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세종조 정재 창사에 표출되는지 연구하고자 하는데 논의를 출발점을 두고자한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1473년)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년), 『악학궤범(樂學軌範)』등 원전을 참고로 그와 관련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정재 내용의 예악사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자의 『예기(禮記)』 중 악기편을 참고하였다. 이외의 유교적 악(樂)사상으로는 맹자, 순자 등의 악론(樂論)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본 연구의 맥락이 정신·사상적 측면에 입각하여 정재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세종조 창제된 여러 곡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고, 그 중 대표적이라 사료되는 「봉래의」(鳳來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 세 가지 정재의 창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1) 송혜진(2000). 『한국 아악사 연구』, 민속원, p. 181.

2) 이성무(1999).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p. 286; 『세종실록』은 세종 재위 32년간(1418-1450)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원명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으로 총 67책, 16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세종조 무악정책(舞樂政策)의 전개양상

조선 초기 성리학적 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예악의 정비가 요구되었던 사실은 새로운 왕조의 통치 원리인 유교의 엄격한 정통 이념에 기초한 사회 체제를 정립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따라서 세종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예악의 정비와 무악정책의 시행은 비로소 이 시기에 유교 이념의 기반 위에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종조 무악정책은 크게 아악(雅樂)의 정비와 신악(新樂)의 창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송혜진의 『세종대 음악정책의 전개 양상과 특성』에 밝힌 세종조 무악정책의 배경³⁾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유교국가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와 악의 조화로운 전승을 통해 왕도에 이르고자 한 근원적인 이상, 둘째, 아악을 주나라 시대와 같은 올바른 음악으로 바르게 정리하여 국가의 제례시 격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조선 건국을 위해 노력한 선왕들의 치적을 조선적인 신악으로 완성하려는 세종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세종 이전의 미비한 악을 제대로 갖춘 예를 올리기를 위한 무악정책의 하나로 악공과 무동 등, 당시 무악(舞樂)을 담당했던 재랑(齎郎)들의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奉常寺)의 재랑(齎郎)들이 다른 사무를 핑계하고 자기가 맡은 가무(歌舞)에는 마음을 써서 익히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육아일(六衙日) 뒤 이튿날에 한 번 모여서 업(業)을 익히게 하고, 사맹삭(四孟朔)에 모두 재주를 뽑고, 세말(歲末) 도목(都目)에 이를 빙고하여 서용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

『세종실록』에 나타난 봉상시 재랑들의 서용 절차를 아뢴 예조의 글은, 그 당시의 악을 담당한 재랑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무(歌舞)를 익히는 일에 게을리 하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연습을 시킬 것을 청하고 있는 글

3) 송혜진(2000), p. 182.

4) 『世宗實錄』권 19, 즉위 5년 2월 4일(을묘)

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덕치로 다스리기 위해 먼저 예악이 바로 서야 하는데, 세종 이전까지는 형식화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된 악공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무악정책의 일환으로 각 의례에 사용된 관복과 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행해졌는데, 특히 세종의 명에 의하여 박연이 악공들과 무동의 의복, 의물을 고제(古制)에 합당하게 재현하기 위해 그림으로 그려 보이는 등의 완벽에 가까운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제대로 된 의례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이상적인 무악으로의 완성의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세종 자신의 주체적인 무악(舞樂)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르기를, “박연(朴堧)이 조회(朝會)의 음악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율려신서(律呂新書)》도 형식만 갖추어 놓은 것 뿐이다. 우리 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중국에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중국의 음악인들 어찌 바르게 되었다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⁵⁾

위의 글에서 잘 나타나듯이, 아악정비는 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나,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중국악의 수입과 정비에만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의 음악을 만들고자 한 세종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향악으로의 자부심과 의지는 세종조 무악정책의 가장 큰 업적인 신악창제로 이어졌다. 신악이란 세종이 조종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간난을 형용하기 위해 고취악과 향악을 참고하여 새로 작곡한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 등을 말한다.⁶⁾ 신악의 창제과정에서 세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로 지은 악장과 조화를 이룰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기에 이르는데, 아악의 정리과정에서와는 달리 세종이 직접 신악 창제에 몸담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악(新樂)의 절주(節奏)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

5) 『世宗實錄』권 5, 즉위 12년 12월 7일(계유)

6) 송혜진(2000), p. 196.

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 수양 대군 역시 성악(聲樂)에 통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니, 기생 수십 인을 데리고 가끔 금중(禁中)에서 이를 익혔다. 그 춤은 칠덕무(七德舞)를 모방한 것으로, 궁시(弓矢)와 창검(槍劍)으로 치고 찌르는 형상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⁷⁾

위에서 세종 자신이 직접 신악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신악을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기생 수십 명에게 교습하게 하여 헤아리고 고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당시의 신악창제 작업의 신중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 나타나는 무악정책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시대의 무악은 단순히 춤과 노래로 군왕의 헌가와 칭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건국 후 나라의 혼란과 민심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사회 혼란을 예악으로 극복하려 했던 공자의 노력에서와 같이 조선 세종조에 있어서도 이러한 혼란과 역성혁명으로 이룩된 조선의 건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악사상에 의거한 무악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III. 세종조의 예악사상(禮樂思想)

유교정치내에서의 예악사상은 국가경영의 도덕적·문화적 교화수단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한 분(分)의 원리인 ‘예(禮)’와 사회 구성원들간의 화(和)의 원리로 작용되는 ‘악(樂)’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가 사회를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질서를 강조한다면, 악은 사회내에서 수평적 조화와 화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잘 다스려지는 시대의 음악은 그 정치가 화평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다. 어지러운 시대의 음악은 그 정치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망해서 분노에 차 있다. 망국의 음은 슬프고 생각하게 한다. 이는 그 백성이 곤궁하기 때문이다. 성음(聲音)의 길은 정치와 통하는 것이다.⁸⁾

7) 『世宗實錄』권 126, 즉위 31년 12월 11일(정사)

8) 이민수(1993), 『예기』, 해원출판사, p. 414: 是故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聲音之道, 興政通矣.

위의 『예기(禮記)』에서 인용한 글과 같이 예는 인간세계의 질서를 추구하여 정치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경영과 악의 경영이 서로 상통함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불교식 무속의 관습을 타파하고자 승유억불(崇儒抑佛)의 유교적 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예악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것에 크게 비중을 두고 예악사상을 표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개국과 함께 예악의 제도적 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 시기에는 예악사상의 특성과 이념에 대한 연구나 인식보다는 제도적 정착을 우선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더욱이 악은 예에 대거되는 이념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예제(禮制)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었으며, 고려대의 것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그 대로 답습함으로써 제대로 된 예악의 시행이 불가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제왕된 자는 나라를 세우는 대업의 공을 이루면 음악을 제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가 정립되면 예법(禮法)을 제정한다. 그 대업의 공이 크면 그 음악이 갖추어지고, 그 교화의 정치가 정립되면 그 예법이 갖추어진다.”⁹⁾는 곧 조선조의 예악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왕조의 융성한 시기에 예악이 나온다는 결과로서, 예악의 구비를 말하려는 것이기 보다 예악을 통하여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

『성종실록』권 98에 영사 정창손의 말을 인용하면 “음악의 쓰임은 큰 것입니다. 세종께서 매사에 뜻을 기울이지 아니함은 없으나 음악에 대해서는 더욱 마음을 써서 일찍이 박연과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음악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나도 네가 아니었다면 역시 음악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였다”¹⁰⁾라는 글에서 세종이 신료들과 더불어 예악 제정에 얼마나 큰 힘을 쏟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세종 시대는 유교적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와 그 실천을 위한 예악의 구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9) 이민수(1993). p. 421.: 王者功成作樂, 治定制禮, 基功大者基樂備, 基治辯基禮具.

10) 『成宗實錄』권 98, 성종 9년 11월 7일(갑자)

IV.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

세종조의 궁중정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악사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유교적 국가경영의 덕치주의가 확립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궁중정재는 성리학적 예악문화 실현을 위한 조직화, 체계화, 제도화의 실천의 장으로 유용하였으며, 특히, 조선전기의 학자들에 의해 창제된 「수보록」, 「하황은」, 「근청전」, 「봉래의」 등의 정재는 이러한 예악의 제도화 과정에서 추출된 시대사적 산물¹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종조에는 민심수습과 건국 정당성의 입증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세종조는 조선 초부터 내려온 당악정재를 재연한 것과 더불어 새로운 신악의 활발한 창제가 부각되었는데, 특히, 조선건국 개국송이라고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 창제 이후 지어진 「봉래의」, 「보태평」, 「정대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내려질 수 있다. 세종조 창제된 대표적인 정재인 「봉래의」, 「보태평」, 「정대업」의 창제과정을 실록에 나타나는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창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예악사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봉래의」(奉來義)

「봉래의」는 세종 후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대표적인 춤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추는 정재이다. 『세종실록』권 138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고취악과 향악에 기초하여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 등 신악을 창제하였다고 한다.¹²⁾ 이와 같이 세종대왕이 작곡한 「봉래의」(鳳來儀)는 그 악보가 『세종실록』권 140부터 권 145에 수록되어 있으며, 『악학궤범』권 5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鄉樂呈才圖儀)」에 「보태평」,

11) 성기숙(1999), 『한국 전통춤 연구』, 민속원, p. 215.

12) 『世宗實錄』권 138: 世宗因鼓吹樂鄉樂創爲新樂曰, 定大業保太平發祥鳳來儀, 今謹錄.

「정대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봉래의」는 조선 전기 세종이 태조(太祖) 창업의 공덕을 경송(敬頌)하기 위하여 창제된 춤으로 용비어천가를 창사(唱詞)로 부르는 특징을 지닌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1445) 4월에 권제(權題), 정인지(鄭麟趾), 안지(安止) 등이 지어 올린 125장으로 구성된 시가로, 서(序)에서 창제의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엎드려 살피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앞선 임금님들의 뒤를 이으신 후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두손을 공손히 모아 쥐신 채로 예가 갖추지고 악이 어우러지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노래를 짓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인 것이다. 나는(정인지) 집현전 대제학 의정부 우찬성 권제(權題), 제학 공조 참판 안지(安止)와 함께 은택을 흠뻑 입어 문한의 직을 맡고 있으니 성덕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다.

“예가 갖추지고 악이 어우러지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노래를 짓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인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용비어천가 창제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선건국 후, 세종조에 이르러 유교 국가의 이념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예악을 통하여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1) 구호

진구호(進口號)

念我祖宗 德盛功隆 생각건대 우리 조종 공덕이 융성하매
載篤其慶 誕膺成命 도타운 경사로 천명을 받으셨습니다
於萬斯季 赫赫昭宣 만세토록赫赫히 밝게 퍼실 것이매
永言嘆嗟 惟以遂歌 차탄을 길게 하여 노래 부릅니다

퇴구호(退口號)

天高地厚 盛德難名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운 성덕을 일컫기 어려우매
形存歌頌 庶幾象成 가송에 나타내어 공덕을 형상하려 하였나이다
簫管既奏 庶幾象聲 소관을 연주하니 그 소리가 속웅하매
萬姓歡心 永賀昇平 만백성이 기뻐서 길이 태평을 축하하나이다

위는 『악학궤범』에 기록된 것으로 실록에 전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종의 공덕이 융성하매 도타운 경사로 천명을 받으셨습니다

니다”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문구로, 역성혁명으로 세운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경사이며, 두터운 공덕으로 인한 불가피한 하늘의 뜻임을 밝히고 있다. 또, 차탄을 길게 하여 노래 부른다는 것에서 ‘차탄’은 느껴서 감탄한다라는 뜻으로 조선 건국의 감격을 잘 표현한 문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국의 공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가의 의미를 초월하여, 천지와 조화를 이루고, 덕을 닦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퇴구호의 “하늘처럼 높고 두터운 성덕을 일컫기 어려우매 가송에 나타내어 공덕을 형상하려 하였나이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소관을 연주하니 그 소리가 숙옹하매”에서 소관은 악기 명칭이며, 숙옹하다는 것은 소관을 연주하는 그 음이 공경스럽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2) 용비어천가(치화평 제 3기)

불휘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뵈썌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그믄래 아니 그출썌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끓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불근새장

불근 새 그를 므러 寢室(침실) 이페 안즈니 聖子革命(성자혁명)에 帝祜(제후)를 뵈수랴니

보야미 가칠 므러 즈겻가재 연즈니 聖孫將興(성손장흥)에 嘉祥(가상)이 문제시니

붉은 새가 글을 몰어 (문왕)침실의 지갯문에 앉으니, 이것은 그 성자(무왕)가 혁명을 일으키려 하매, 하늘이 내리신 복을 보일 것이니.

뺨이 까치를 몰어 나뭇가지에 앉으니, 이것은 성손(이 태조)이 장차 일어나려 하매 그 아름다운 징조가 먼저 나타난 것이니.

위는 『악학궤범』 성종조 향악정재도의에 나타난 「봉래의」 정재의 치화평 3기 연주 부분에 불려지는 용비어천가의 악장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불휘장은 용비어천가 중 백미로 꼽히는 부분으로,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회지 아니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글로써 더 유명한 문구이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상징하며, 샘이 깊은 물이라는 것은 유서가 오래된 나라를 뜻한다. 이는 조선왕조의 문화의 번창과 왕조의 무궁함을 염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조선의 무궁한 발전과 송축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의 7장에 해당하는 불근새장은 주나라의 문왕의 고사를 인용하여 조선건국의 아름다운 징조가 도조 때 나타났음을 칭송하는 악장이다. 불근새장은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조선건국의 성스러운 징조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성군은 삼가는 마음과, 의로움을 갖춘 자만이 만세토록 성할 것이요, 인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 글은 유교적 국가경영의 큰 예를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할 수 있다.

2. 「보태평」(保太平) · 「정대업」(定大業)

「정대업」과 「보태평」을 창제한 동기는 그 전의 「수보록」, 「몽금척」 같은 고취악¹³⁾이 어느 한 임금만의 공덕을 노래하였을 뿐, 역대 조종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 없어 여러 조종의 공덕과 건국의 어려움을 나타내고자 창제된 악무이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와 달리 두 악무의 작사자는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알 수가 없다. 다만 음악은 새로 작곡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고취악과 향악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¹⁴⁾ 이는 두 악무를 창제할 당시 세종의 하루 저녁에 신악을 완성하였다는 일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악학궤범』 「향악정재도의」에서 살펴보면 「보태평」은 세종 1447년 창제된 춤으로, 여기 36인이 단장(丹粧)을 입고 잡식(雜飾)을 하고 악과 적을

13) 궁중의 예식, 임금의 거동, 제향(祭享), 통신사의 행렬과 같은 때에 연주하던 군악(軍樂) 계통의 음악으로, 조선시대 고취악은 고려의 향악과 함께 새로운 창작음악에 쓰였다. 새로 창작된 여민락(與民樂), 계우(啓宇), 독경(篤敬), 생가요량(笙歌寥亮) 같은 악곡들이 고취악 계통에 드는 곡들이다.

14) 성경린(1985). 『세종시대의 음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23.

들고 추는 향악정재이며, 「정대업」은 여기 71인이 오색단 갑옥을 입고 청단 투구를 쓰고, 35인은 의물을 손에 쥐고, 나머지 36인은 칼과 창, 궁시를 들고 추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신사 안승선·좌대언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태조를 위하여 무무를 만들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를 만들 것이며, 겸하여 현금의 일도 노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고, 좌부대언 권맹손(權孟孫)은 말하기를, “마땅히 임금의 말씀과 같이 태조·태종을 위하여 나누어 문무 두 가지 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일은 뒷세상에서 반드시 가영(歌詠)할 것입니다.”하였다.¹⁵⁾

「보태평」과 「정대업」이 각기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로 제정된 사실은 실록의 여러 기록에서 그 창제과정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태평」과 「정대업」은 조선왕조의 위업을 세우고, 선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목적으로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창제를 위한 각 신료들과 정부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원래 「정대업」과 「보태평」은 무무와 문무에 쓰이는 회례악이었으나, 세조에 이르러 그 고취악과 향악에 인하여 신악이 된 춤 이외에 또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두 안무가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된 후, 「정대업」 15곡이 11곡으로 축소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사의 귀수(句數)도 생략되었으며 편중, 편경 등 아악기가 삽입된 관현악으로 연주하게 되었다.

『세종실록』권 116에 실려 있는 의정부에서 세종에게 아뢰는 예조의 공문에 나타나는 「보태평」의 11악장 중에서 대표적이라 사료되는 회문(熙文), 역성(譯成) 두 악장과, 「정대업」 8악장 중, 소무(昭武), 영관(永觀)에 나타나는 예악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태평」

회문(熙文)

維天命不易 대저 하늘님은 명하심이 쉽지 아니하매,
維德則以興 덕이 있으면 흥하니,
於皇我烈聖 높으신 우리 여러 성군님께서

15) 『世宗實錄』권 56, 즉위 14년 5월 7일(갑자)

暇哉休命膺	크게 아름다운 명을 받으시어,
神謀與聖烈	신령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공업이
丕顯且丕承	크게 나타나고 크게 이으시도다.
應運開太平	운수에 응하여서 태평을 이루시고
至仁撫黎蒸	지극한 사랑으로 만백성을 기르시며,
啓佑我後人	우리의 뒷세대를 열어주고 도우시매,
萬世相繩繩	억만대 영원까지 이어가고 이어가리.
何以昭盛美	이렇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꼬.
是宜謠頌	마땅히 노래하여 찬송을 올리리오.

역성(譯成)

天生列聖 寵綏大東	하늘이 여러 성군을 나게하시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안유하셨네.
世德作求 率維敎功	여러대의 덕화로 애써서 구한것이 어루만진 공을 잇따라 하심이니,
功成治定 神化彌綸	공이 이룩되고 정치가 안정되매 신령한 교화가 널리 퍼지도다.
禮樂明備 煥乎其文	예의와 음악이 밝게 갖추이매 문덕이 이에 찬란하게 빛나도다.
左 藩右翟 曰既九變	왼편에는 피리, 오른편엔 쟁깃이라. 노래 곡조가 아홉 번 변하오매
熙熙雍雍 盡美又善	태평하고 화락하음 진선진미 하오이다.

회문은 인입(引入)이라 하여 인도하여 들어가면서 부르는 곡이다. 『악학궤범』에 기 36인이 모두 여러 가지 장식을 단장하고, 약(藹)과 적(翟)을 들고 손은 여미면서 서면, 음악이 회문을 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덕이 있으면 흥하나니”는 선왕들의 덕이 높아 하늘에서 조선건국을 지지하였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신령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공업”이라 함은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거점으로 망국의 폐해가 심했던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한 선왕들의 지혜로운 계획과 공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늘의 뜻을 받아 건국된 조선왕조는 만년을 넘어 영원까지 그 공덕이 어어 나가리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회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악사상은 마지막 문장 “이렇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꼬, 마땅히 노래하여 찬송을 올리리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조선 건국의 모든 공(장한 일)을 표현할 길이 바로 노래라는 이 문장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시기에 조종 신료들이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바로 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즉, 건국의 공덕을 악으로 승화하여 만세에 알리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서 당시의 예악의 위상과 그것을 향한 노력들의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성을 살펴보면, 역성 인출(引出)이라 하여, 춤추는 무동들이 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물러가는데 쓰이는 곡이다. 이 곡은 하늘의 열성으로 조선이 여러대에 걸쳐 덕치를 이룩하였고,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이의 결과로 예와 악이 밝게 갖추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예의와 음악이 밝게 갖추어 지니, 문덕이 이에 찬란하게 빛나도다”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원편에는 피리이고, 오른편엔 평깃이라”는 보태평지무에서의 의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악과 적을 나타낸다.

악은 구멍이 세 개인 세로로 부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와 같은 악기이며, 적은 평털을 나무자루에 매단 것으로 평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의물이다. 악을 상징하는 악과 예를 상징하는 적을 들고 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예악사상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그대로 형상화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가 사회의 수직적 질서를 유지하는 구분의 원리이며, 악이 사회의 수평적 화합을 위한 조화의 원리라고 할 때, 「보태평」의 의물(儀物) 악과 적은 예와 악의 상징적 의미로서 사용되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종묘제례악의 「보태평」에서도 좌약우적을 손에 들고 추고 있다.

역성에서 나타나는 예악사상은 구체적인 의미로서, 당대 예악의 대표적인 형상인 일무의 형태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악과 적을 들고 추어진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가 곧 예악의 표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정대업」

소무(昭武)

皇天眷東方 황천(皇天)이 이 나라를 돌보시사
篤生我列聖 우리의 성군들을 나게 하시니,

於皇我列聖 거룩할사, 우리 여러 성군님네
 誕興受成命 크게 일어나 천명을 받으셨도다.
 世哲殯肖德 여러 세대 명철한 덕이 내리내리 이으셔서
 耆武定厥功 높으신 무덕(武德)으로 큰 공을 정하시고,
 肇我不丕基 큰 터전을 마련하사
 以保我大東 우리 나라 보전하니,
 皇皇無競烈 거룩하신 막대한 업적
 垂永久無劇 길이 드리워 끝이 없으리.
 庶用歌且舞 이에 노래하며 춤을 올리니
 干戚奕以繹 간척(干戚)이 번득이고 찬란하외다.

영관(永觀)

於皇列聖 奄有大東 장하실사 여러 성군, 이 나라를 다스릴새
 綏定厥家 世有武功 왕가를 안정함에 대대로 무공일세.
 維功之盛 維德之崇 무공이 왕성하고 덕화가 높은지고.
 我舞有奕 僥以形容 우리의 춤에 차례가 있어 적이나마 형용해 보이도다.
 激我干戚 建止有程 간척(干戚)을 거두오니, 나아가고 그침이 법도가 있어
 委委佗佗 永觀厥成 씩씩하고 평화롭다. 큰 성과를 길이 보오리.

기록에 의하면 「정대업」은 당 나라의 칠덕무(七德舞)를 모방한 것으로 궁시(弓矢)와 창검(槍劍)을 치고 찌르는 형용을 하며 추는 춤으로 조종의 무공을 칭송하는 무무(武舞)이다.¹⁶⁾ 소무는 「보태평」의 희문과 같이 5언 1구, 12구로 구성된 악장으로, 그 내용에는 열성의 무공을 무무의 가무로 보이겠다는 춤 내용 소개를 하고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늘의 덕으로 여러 세대 높은 무덕으로 조선이 큰 터전을 이룩하게 되었음을 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큰 업적을 노래와 춤으로 받쳐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룩하사 막대한 업적 길이 드리워 끝이 없으리 이에 노래하며 춤을 올리니, 간척이 번득이고 찬란하외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태평」의 여러 악장에서 살핀바와 같이 노래와 춤으로 공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관은 인출곡으로 5언 1구의 소무와는 달리 4언 1구로 되어있다. 조선의

16) 정은혜(1993). 『정재연구』, 대광문화사, p. 226.

성군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높은 무공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며, 이들의 무공이 왕성하고 덕화가 높음에 춤의 차례대로 이러한 공을 형용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간척을 거두오니, 나아가고 그침이 법도가 있어, 썩썩하고 평화롭다.”는 정대업의 춤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기』의 악기편에도 이와 유사한 문장이 있다.

빈모가가 공자 곁에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이와 더불어 말해서 말이 악에 미쳤다. 말하기를 “대체로 무무(武舞)에 있어 계비(戒備)함이 이미 오래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빈모가가 대답했다. “그 무리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영탄하고 음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손발은 놀리고 땅을 밟음이 사나운 것이 것처럼 빠름은 무엇 때문인가?” “때에 미쳐서 일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중략)…… “대저 무무에 있어 계비함이 오래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감히 묻자웁니다. 이것을 더디하고 더디해서 또 오래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앉아라. 내 네게 말해주겠다. 대저 악이라는 것을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무거운 자세로 서 있는 것은 무왕의 일이다. 손발을 올리고 땅을 밟음이 사나운 것은 태공의 뜻이다.¹⁷⁾

공자가 제자 빈모가에게 던진 질문은 무무에 있어 그 계비(戒備)함 즉, 그 준비와 자세가 느리고 느려 오래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었다. 윗 글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무무를 추는 자세와 그 태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 무리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것입니다”에서 그 무리란 군대를 뜻하는 것이며, “때에 미쳐서 일을 행하려는”은 전쟁의 때를 잘 살피서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무무와 조선 세종조 「정대업」과는 형태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전쟁에 나가기 전 군사들의 마음 자세와 전쟁에서 이길 것(일의 성공)을 굳게 다짐한다는 공자의 말을 참고할 때, 조선시대 「정대업」에서도 창검과 궁시를 손에 들고 추었던 그 근엄하고 느린 움직임의 내적 태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정대업」과 「보태평」이 모두 중국의 무무와 문무를 참고로 창제된 것이며, 실록의 여러 글에서 중국 서적과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무악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무악이 완성되었음을 상기할 때, 어느 정도 타당

성을 인정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조 대표적으로 창제된 「봉래의」, 「보태평」, 「정대업」 정재창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 시기의 정재는 ‘예’와 ‘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바로 잡으려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예악의 제도화를 통해 역성혁명으로 건국된 조선의 국가존재의 정당성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세종조에 이르러 예악이 정비되고, 예악사상에 입각하여 여러 정재가 창제된 것은 조선 왕조를 유교이념의 사회체제로 정립하는데 성공하였고 조선의 유교사상이 새로운 왕조의 이념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종조의 정재는 예악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으며, 창사내용 또한 예악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말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조선 세종조에 이루어진 무악정책(舞樂政策)의 전개양상과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禮樂思想)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로서, 세종조에 창제된 대표적 정재인 「봉래의」(鳳來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의 창제배경과 창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세종조의 시대적 상황은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유교적 예악사상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는데 특히, 제례의식, 궁중의 예연, 외교사절의례 등 국가의 여러 행사에서 음악과 무용이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때, 예악사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악사상의 정치적 발로로서의 무악(舞樂)은 세종조에 정점에 이르게 된다.

「봉래의」는 용비어천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나타나는 정재로, 창사 내용은 조선건국의 터를 잡으신 성군들의 덕을 칭송하고, 하늘의

덕으로 건국된 조선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악사상은 좋은 시대의 음악은 평화롭고 그 음이 온순하며, 망국의 음은 혼탁하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조선건국이 하늘의 뜻이므로 그 음악 또한 편안할 것이라는 예악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회례악무로 창제된 것으로 태조와 태종의 문덕과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정제는 조선건국의 여러 선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악장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어우르는 악장을 창제하고자 한 세종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국의 간난과 찬양을 좋은 노래와 춤으로서 받치고자 했던 당대의 노력 즉, 창제과정과 창사의 내용에서 예악사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세종조 무악정책의 전개양상 속에서 궁중정제에 나타나는 예악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역성혁명으로 인한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선왕들의 공덕을 칭송하고자 했던 세종조의 노력과 업적은 어느 시대보다 문화사적으로 높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무용사 연구에 있어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시기에 이루어진 무용형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사상사적인 관점과 연계함으로써 문화사적으로 무용이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한국무용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궁중정제 뿐 아니라 민속무용이나 의식무용 등의 연구분야에 보다 심층적이고 거시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거류(1994). 『예의 정신 - 예악문화와 정치』, 서울: 동문선.

- 김기수(1984). 『정대업 · 보태평의 악장과 일무보』, 은하출판사.
- 서복관(1978).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 성경린(1985). 『세종 시대의 음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81). 『세종대왕어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송혜진(2000). 『한국 아악사 연구』, 민속원.
- 양 인리우(1999). 『중국고대 음악사』, 솔 출판사.
- 이민수 역(1993). 『예기』, 해원 출판사.
- 이성무(1999).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 이재숙 외(1998).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혜구(2001).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 장사훈(1982). 『세종조 음악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변영진(1990). 예악사상의 본질과 조선조 실천논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청구논문.
- 성기숙(2000). 궁중정재에 나타나는 사대사상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 한국무용예술학회.
- 성윤선(1995). 조선전기 궁중정재의 유교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청구논문.

Abstract

Li-Ak(禮樂) Thought of Court Music-Dance during King Sejong

Yul-hee Kim

Lecturer of Dance

Kangwon Arts, Hyewon Girl's High School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usic-dance policy during the King Sejong, Chosun Dynasty, and the Li-Ak thought that is shown in the court music-dance. For the method of study original texts such as the “*Sejong-sillok*”, “*Li-Gi*”, “*Akhak-Kwebom*” etc were used as reference and synthesized with existing studies.

The *Li-Ak* thought during this period was expressed through the court music-dance, and it is clear that the means for *Li-Ak* thought was court music-dance. The effort to manifest the legitimacy of *Chosun*'s founding and piety through dance and music reaches its height during King *Sejong*'s time. Therefore, when analyzing the court songs of the court music-dance created during the *Sejong* period, it is clear that court music-dance was used as a means to express the *Li-Ak* thought.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earches made on the creations' origin and the content of the court songs of the court music-dance *Bongraeui*, *Botaipyung*, *Jongdaeup* created during this period. The *Li-Ak* thought shown *Bongraeui* is based on the thought that music created during peaceful times has a harmonious tone and that the legitimacy of the *Chosun* foundation and reign of peace can be expressed through such good music. *Botaipyung* and *Jongdaeup* are court music-dances praising King *Taejo* and *Taejong*'s distinguished literary skills and courage. The *Li-Ak* thought is clearly shown in the efforts of that time that sought to support its praises through good music and dancing, or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creation and content of court music.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dance during the *Sejong* period, which made great advancements in the Korean dance history, from an ideological perspective, and tha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meaning of court music-dance was carried out.